

OECD 회의 발표 및 협의 출장복명서(안)

공공투자관리센터 김재형 (2011. 5. 1)

□ 출장 목적

- ① OECD의 공공지역개발국(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Directorate)이 OECD 본부에서 주최하는 고위재정전문가(SBO: Senior Budget Officer) 회의의 제4차 민간투자 회의(OECD Fourth Annual Meeting on Public Private Partnerships)에 참석하여,
- ② 한국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및 제도개선 사례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, 현재 OECD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 재정관리 강화방안에 대하여 논의
- ③ 한편 프랑스 정부 재무부의 민간투자국을 방문하여 민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협의함.

□ 출장자

-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재형

□ 출장 예정일

- 2011년 3월 23일(수) ~ 2011년 3월 27일(일)

□ 출장 일정

- 2011년 3월 23일(수) : 서울 출발, 프랑스 파리 도착
- 2011년 3월 24일(목) : OECD 회의 참석, 발표 1
- 2011년 3월 25일(금) 오전 : OECD 회의 참석, 발표 2
- 2011년 3월 25일(금) 오후 : 프랑스 재무부 방문
- 2011년 3월 26일(토) : 파리 출발
- 2011년 3월 27일(일) : 서울 도착

□ 주요 출장 내용

① OECD 본부 고위재정전문가(SBO: Senior Budget Official) 회의 내용

- 금번 회의는 민간투자사업(PPP) 관련 EU 국가들의 정책수립 및 집행 관련한 “일반원칙(General Principles)” 정립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
-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선정, 재정지원 가능 여부 및 방법, VFM 평가 방법,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법, 그리고 예산 회계 보고 방법 등과 관련하여 EU 국가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“일반원칙”을 수립하고자 준비해 왔는데 세부 사안에 대하여 논의
- 아직 국가 간, 이해당사자 간에 많은 이견이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불가피하지만 금년 상반기 중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반원칙을 확립하여 하반기에는 일반원칙으로 공표하는데 합의를 도출
- 다만 일반원칙이 발표되더라도 이것이 하나의 참고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는 있으나, 각 국가들의 민간투자사업 정책이 강제적으로 따라야 하는 구속적 원칙이 되지는 않을 것임을 천명함.
- 기타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에 있어 민간투자사업 추진 사례 및 교훈을 발표, 논의
- 한국은 민간투자사업을 가장 적극적이면서 모범적으로 운영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서 일반원칙 정립 및 사례 제시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평가함.
-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사례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최근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들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으며,

많은 나라들이 한국 정부의 최근 정책변화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함.

- ② 프랑스 재무부 민간투자국 국장(Mr. Francoise Bergere)을 만나서 향후 프랑스와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정책 및 사례 교환을 상호 교환하기로 협의
 - 프랑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, 한국의 선행 사례에 대하여 네트워크를 하기를 희망
 - 특히 KDI 공공투자관리센터(PIMAC)와 같은 민간투자사업 전담기구의 역할 및 경험을 벤치마킹하길 희망함.
 - 필요한 경우 프랑스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수행 사례에 대하여 자료를 교환하고 우리나라의 사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공하기로 협의